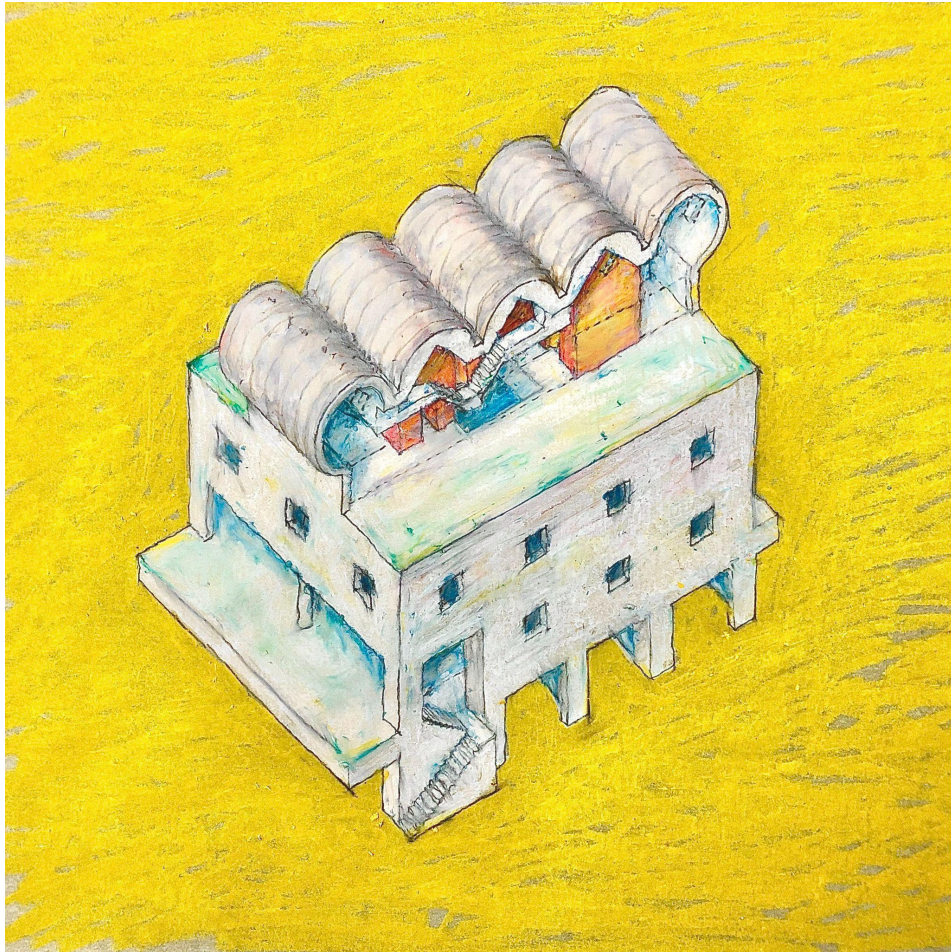


## Unit 2 by Hyoyoung Kim

### Single-family House 단독주택

---



문경 복터진집 / 살아있는 것, 김효영

#### Unit Master:

단국대학교와 경기건축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여러 젊은 건축가의 아틀리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김효영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건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감정이입하여 성격을 찾아내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질문으로 건축과 지금의 우리를 묶어내려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축사이고 영주시, 서울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가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작업으로 점촌 기와올린 집, 문경 복터진 집, 압구정 근린생활시설, 동해 폐쇄석장 리모델링, 인제 스마트 복합센터 리모델링 등이 있다.

---

---

## Unit Agenda:

### 주제//

2학년 1학기 설계수업에서는 단독주택을 계획합니다. 집은 우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애완건물(愛玩建物), 반려건물(伴侶建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선 안에서 집이라는 공간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서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논리와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건축에 다가가는 첫 걸음으로서 여러분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 방법//

계획의 내용은 내가 사는 집입니다. 331㎡(100평) 이내의 규모 내에서 대지의 조건도 없거나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앞서 나와 함께 살아갈 집이라는 건축이 서로 정서적인 관계를 위해 어떠한 성격과 특성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고 표현하며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집의 성격을 바탕으로 건축으로 연결되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의 배치, 건축의 요소들과 구조에 이르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계획의 출발은 주관적 의도와 개인적 감정의 특수성에서 시작하되 건축의 문법과 어휘로 표현하며 최종적으로 객관적 이해와 공감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 결과물//

결과물은 집의 성격을 찾기위해 행해지는 글과 그림 이미지 등의 표현물 등 건축적이지 않은 결과물과 함께 건축계획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도면, 투상도, 투시도, 모형 등 건축적인 결과물을 포함합니다. 특히 건축적 결과물 중 도면은 약속된 표현의 형식에 맞도록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하여야하며 투상도 및 투시도는 의도했던 내용과 감성, 분위기 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또한 모형은 모형은 계획된 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표현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 평가//

평가는 수업계획서에 등재된 비율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가시 각자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였는지와 각 단계의 성실도와 완성도가 주된 평가요소가 됩니다. 특히 최종 결과물은 올바른 건축적 표현으로 수업에서 목적하는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2학년 1학기는 건축설계에 대해 깊이있게 접근하는 첫 학기인 만큼 전형적인 건축의 언어와 표현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할 것이며 그만큼 성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스튜디오는 이성과 객관에 대한 신뢰만큼 주관과 감성에 의한 가능성과 공감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논리적 사고와 함께 건축에 대한 감정이입과 그에 대한 건축적 표현을 주된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내용과 감성을 건축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건축언어의 문법과 어휘들을 습득하여야하며 건축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야 합니다.